

통합특별시 출범... 광주 방위식 자치구 이름 바뀌나

광주시, 명칭 변경 계획 확인 동·북구 적극적 "지역 정체성 반영... 자치권 강화 위해 필요"

오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광주 자치구의 명칭변경 문제가 공식 테이블에 올랐다. 동·서·남·북 등 방위 개념으로 지어진 명칭이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에도 유지될

경우 지역 정체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자치구의 위상과 역할 축소가 우려된 때문이다.

17일 광주시와 자치구 등에 따르면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최근 동·서

·남·북·광산구 등 광주 5개 자치구에 명칭 변경 계획 여부를 확인하는 공문을 발송한 결과, 동구와 북구 등 2개 구가 추진 의향을 밝혔다. 서·남·광산구는 답신을 하지 않았다.

명칭 변경 계획은 지난 1월 구청장협의회가 정식 요구하면서 추진됐다.

협의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전남광주 행정통합은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동·서·남·북의 방

위에서 착안한 현재의 자치구 명칭은 지역의 역사성·상징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합시로 출범하면 명칭은 '전남광주특별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가 되기 때문에 지역의 정체성이 사라질 우려가 있다"며 "고유의 역사가 담긴 명칭 변경과 함께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현재 거론되는 이름은 동구의 경우 무등

산과 5·18민주화 상징이 담긴 '무등구·서석구·충장구', 북구 역시 일부 지역이 무등산 권역에 포함돼 있는 점을 고려해 '무등구'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구와 북구가 명칭 변경 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6·3지방선거가 겹쳐 주민의견 수렴 등 실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자치구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민 여론조사, 명칭 공모 등의 과정을 거친

뒤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어 광주시와 행정안전부에 보고하고 국무회의 의결·공포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5개 자치구 중 동구와 북구만 명칭 변경 계획을 밝혔고 나머지 3개 자치구는 내부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새로운 자치단체장이 선출되면 명칭 변경도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영암 농업근로자 기숙사 준공 "외국인 인력 안정 확보 기대"

전남 농촌 인력난 해소의 핵심 기반으로 꼽히는 농업근로자 기숙사가 영암에 들어서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안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전남도는 17일 영암군 시종면 월송리에서 농업근로자 기숙사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황기연 전남도지사 권한대행과 우승희 영암군수, 도·군의원, 지역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기숙사는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55억원(국비 7억5000만원·도비 2억2000만원·군비 45억3000만원)이 투입됐다. 지상 2층, 연면적 1209㎡ 규모로 조성됐으며 총 23개 실을 갖춰 최대 46명이 생활할 수 있다.

시설은 단순 숙소를 넘어 생활 편의를 고려한 구조로 설계됐다. 각 객실에는 샤워실과 화장실이 설치됐고, 공용 세탁실과 공동 주방도 함께 마련돼 장기 체류 근로자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숙사는 영암군이 직접 운영하며, 월 출산농협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캄보디아 계절근로자 40여명이 오는 4월 초 입주할 예정이다. 안정적인 숙소 제공을 통해 근로자들이 농작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주거·인권 문제 개선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전남도는 이번 시설이 농촌 고용 구조 개선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돼 온 주거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안정적인 인력 확보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주·전남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5·18정신헌법전문수목국민추진위원회가 17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를 향해 개헌특위 즉각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5·18 헌법 전문 수록, 이제는 실행할 때"

시, 이 대통령 개헌 검토 지시 환영... 국회 신속 추진 촉구 강기정 시장 "국민 동의 끝난 과제... 개헌 반드시 이뤄야"

광주시와 광주·전남 시민단체가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적 검토를 지시한 것에 대해 국회 개헌특위 구성과 함께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촉구했다.

광주시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대통령이 5·18정신과 부마항쟁의 가치를 함께 언급하며 공식 검토를 지시한 것은 매우 뜻깊다"고 환영하며, "이제는 논의를 넘어 실질적인 입법 성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또 정부와 국회의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개헌의 핵심 과제로 확고히 인식하고 신속히 추진할 것, 국회가 개헌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6·3지방선거 동시 투표 방안 등을 포함한 구체적 논의에 착수할 것, 여야 정치권이 초당적 협력을 통해 개헌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할 일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한다"며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언급처럼 국민이 동의하는 부분만이라도 이번 개헌에서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어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여야를 넘어 국민적 동의가 이뤄진 사안이며, 행정적·입법적 준비도 충분히 갖춰졌다"며 "정치권이 책임 있는 결단으로 이를 완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전남 시민단체 173개, 개인 624명이 모인 5·18정신헌법전문수목국민추진위원회도 이날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가 계속 머뭇거리면, 그것은 5·18의 희생과 민주주의의 역사 앞에서 스스로 책임을 저버리는 일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18은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의 민주주의이며 미래다"며 "국회는 즉각 개헌특별위원회 구성과 함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내란과 권력 남용을 막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양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광주시, 1인가구 맞춤형 정책 시행한다 5개 자치구 협력... 사회적 고립 예방·관계망 형성 지원

광주시가 빠르게 늘어나는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건강한 관계망 형성을 돕기 위해 맞춤형 정책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

광주시는 1인가구의 연령대와 성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혼자서도 가치있는 광주생활-솔로 투게더(Solo Together)' 프로그램을 18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고립 문제를 완화하고 지역 내 공동체 연결을 강화하기 위해 시와 5개 자치구가 함께 추진하는 '1인가구 특성화 사업'이다. 총사업비 1억1000만원을 투입해 6개 세부 사업을 운영하며,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생활 속 관계 형성을 지원한다.

앞서 광주시는 5개 자치구와 가족 센터 등을 대상으로 사업 공모를 진행했다. 이후 사업 추진 역량과 효과성, 지역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총 6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들은 청년부터 중장년, 노년층까지 1인가구의 생애주기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활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자치구별 프로그램도 지역 특성에 맞춰 다양하게 구성됐다.

동구는 청년과 중장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잇:온(ON)' 사업을 추진한다. 집밥과 건강식을 배우는 '잇:온 키친', 문화체험과 손수제작(DIY) 활동을 즐기는 '잇:온 컬처' 프로그램은

통해 일상 속 교류를 확대한다.

서구는 '세상 밖으로 1.5보, 서로를 잇는 1.5기구' 사업을 운영한다. 소모임 공동체와 집밥 요리 프로그램 등을 결합한 '온앤온(On&On):같이의 가치', 관계 형성을 돕는 '외출준비 프로젝트' 등을 통해 자발적인 커뮤니티 형성을 지원한다.

남구는 청·장년층을 위한 '1인가구 성장·연결·동행 날아올라' 사업을 추진한다. 탁구와 요리, 성장일지 기록 프로그램 '디딤', 반려동물 간식 만들기, 자조모임 '모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참여자 간 교류와 정서적 지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북구는 '중장년 1인가구 싱글업!' 사업을 통해 사회관계망 형성을 돕는다. 파크골프와 목공예 등 취미 활동을 비롯해 요리와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반찬 나눔 봉사 등 지역 사회 활동 참여도 지원한다.

광산구는 중장년층을 위한 '마음·관계·생활·회복 패키지'와 '아재들의 취향잇기' 사업을 추진한다. 건강 관리 교실과 공유식당, 공동체 활동을 운영하고 생활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취미 활동과 생활 다이닝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한다.

시는 1인가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부터 특성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지난해에는 5개 자치구에서 총 3211명이 참여하는 등 현재까지 6100여명의 시민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호응을 얻었다. 이송홍 기자 photo25@

광주지방법원 판결공시
제 1심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5고민75 의료법위반 등 피고인 윤보현
위 피고인은 의료법위반 등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6년 2월 5일
판사 김홍신

http://in-point.kr
1%부족할 까지도 디자인 하다.

Design Specialist & Creative Think
디에스&시티

실내인테리어 디자인 · 설계 | 실내 건축 공사업 | 3D 영상 · 모델링 / 조경도
육 · 내외 사인물 디자인 / 설계 | 경관 디자인 / 설계 | 산업디자인

(주)디에스시티 | 광주광역시 북구 태봉동 53 (신안동, 2층)
디에스엔시티(주) |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신동로 1-1
대표전화 | 062.433.8800

kidp 신업디자인전문회사

Printing
Promotional item
AD
Design
PR
Advertisement
Solution

NACOS

나의 소통코스
종합광고솔루션 - 나코스(유)

www.nacos.co.kr NAVER 나코스 검색

1004섬 신인 신의도 찰나를 담다!

YouTube
*구글이미지가 있으면이 구독하실수 있습니다
광남일보 iTV
구독 · 좋아요 · 알림 설정까지!

광남일보 iTV 프로그램

• 호국학 자초의 성지, 전남 투룬산 대풍사
• 나주지역 포교의 중심도량 덕룡산 불희사

광고 · 시청문의 062)370-7077